

## 여성교육과 부부갈등의 관련양상 연구

- 「유씨삼대록」을 중심으로 -

한 길 연

(경북대학교 국어교육과)

### 1. 서론

조선시대에 산출되기 쉬운 여성상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조선시대 교훈서를 통해 당대 여성들에게 지속적으로 주입되었던 이상적인 여성이란 자신의 절개를 지킬 줄 아는 추상같은 엄격함과, 자신을 표현하기를 자제할 줄 아는 과묵함과, 잠자리에서조차 단정할 줄 아는 무게감을 갖춘 여성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여성은 간략하게 ‘정숙한 여성’이라 표현할 수 있다.<sup>1)</sup> 이러한 정숙한 여성은 자기 절제 능력이 뛰어난데 특

1) 물론 당대 여성 교육에서는 본고에서 살펴보는 ‘정숙한 여성’ 외에 ‘현철한 여성’과 관련한 사례들도 존재한다. 그럼에도 당대 여성교육서에서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여성상은 주로 ‘정숙한 여성상’의 모습이었다. 더욱이 현철한 여성의 경우에도 기본

주제어: 유씨삼대록, 여성교육, 부부갈등, 정숙한 여성, 탈규범적 여성, 교태로운 여성, 호걸스런 여성

*Yusisamdaerok*, education of women, conflict in conjugal relation, virtuous women, de-standard women, flirtatious women, women with gallant air

히 성적 욕망과 관련해서는 이를 거부하거나 부끄럽게 여기도록 지속적으로 교육받았다. 이들 여성들을 객관적인 시각에서 논의하자면, ‘이념의 과잉’을 보이면서 ‘정념의 결핍’을 보이는 여성이라 할 수 있겠다.

이에 따라 당대 여성교육을 통해 산출될 수 있는 정숙한 여성상은 긍정적인 측면도 적지 않지만, 한편으로 여성을 율매 수 있는 뜻이 될 수 있었다. 행장, 제문 등의 공식적 문헌에서는 이에 관한 내용을 쉽게 볼 수 없지만, 비공식적 담론이라 할 수 있는 고전소설, 특히 조선후기 미시생활사라 할 만큼 당대 일상을 섬세하게 재현해내고 있는 대하소설에서는 이에 관한 내용들이 비중 있게 서술되고 있다. 이에 대해 부부갈등의 양상이 다채로울 뿐만 아니라,<sup>2)</sup> 당대 상층 사대부가의 실제적인 삶의 구현에 충실한<sup>3)</sup> 「유씨삼대록」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대하소설에는 정숙한 아내와 군자형 남편이 갈등을 야기하는 사건이 종종 등장한다. 이 중 「유씨삼대록」은 정숙한 아내와 군자형 남편 간의 부부갈등담이 다양한 사례를 통해 첨예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여기에는 두 사람의 기질 문제도 일정 정도 관여되어 있지만, 당대 여성교육이 지니는 문제점이 깊이 노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본고에서는 「유씨삼대록」을 중심으로 여성교육과 부부갈등과의 관련양상을 고찰해 보기로 한다.

---

적으로는 ‘정숙한 여성’을 그 근거에 깔고 있다는 점에서 정숙한 여성상은 당대 여성들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표준적인 여성상이었다 할 수 있다.

- 2) 선행연구 중 조광국(2007b)(「고전소설의 부부 캐릭터 조합과 흥미-유씨삼대록의 경우」, 『개신어문연구』 26, 개신어문학회)은 「유씨삼대록」에서 다채로운 부부 캐릭터 조합을 통해 당대 부부간에 일어날 수 있는 갈등양상들을 거의 빠짐없이 담아냄으로써 「유씨삼대록」이 흥미를 창출하고 있음을 집중적으로 조명한 바 있다.
- 3) 선행연구에서 「유씨삼대록」의 주인공들이 요절하거나 요절하지는 않아도 장수하지는 못 하는 등의 양상이 펼쳐지는 점을 근거로 하여 「유씨삼대록」은 여타의 작품에 비해 당대 사대부가의 실제적인 삶에 근접하고 있는 작품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한길연(2007a), 「유씨삼대록의 죽음의 형상화와 그 의미」, 『한국문화』 28,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그간 「유씨삼대록」에 대해서는 삼대록계 소설로서의 구조적 특징, 전편인 「유효공선행록」과의 관련양상, 주요갈등의 의미구조, 작가와 창작 시기, 주요인물의 특징, 부부갈등의 의미 등 다방면에서의 연구가 축적되어 그 전모를 밝히는 데 일조하였다.<sup>4)</sup>

이 중 「유씨삼대록」의 부부갈등담과 관련한 주요한 논의들을 보면, 이승복은 삼대에 걸쳐 거듭 제시되는 정-부실 간의 갈등양상을 토대로 가문의 안정과 번영이라는 큰 명제 아래 남녀간의 애정이 긍정되기보다는 봉건적 윤리 이념에 반하는 것으로 치부되는 가운데 부부문제를 통제하는 가장권이 정당화되고 있다고 평가하였으며,<sup>5)</sup> 박일용은 「유씨삼대록」의 부부갈등이 남성보다는 여성을 중심에 놓고 전개되는데 특히 「유씨삼대록」을 ‘진양공주전’이라 할 만큼 전인적 인물인 진양공주가 핵심인물로 부각되는 점을 토대로 「유씨삼대록」이 여성의식이 깊이 투영된 작

4) 「유씨삼대록」에 관한 선행연구로는 이수봉(1978), 「가문소설 연구」, 『동아논총』 15, 동아대 출판부; 이수봉(1988), 「유씨삼대록 연구」, 『동천 조건상박사 고회기념논총』, 형설출판사; 임치균(1989), 「유효공선행록 연구」, 『관악어문연구』 14,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김현숙(1989), 「유씨삼대록 연구-삼대기 구성을 중심으로」,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송성욱(1990), 「고전소설에 나타난 부(父)의 양상과 그 세계관-뉴효공선행록과 뉴씨삼대록을 중심으로」, 『관악어문연구』 15,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임치균(1992), 「연작형 삼대록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이승복(1992), 「유씨삼대록에 나타난 정-부실 갈등의 양상과 의미」, 『국어교육』 77, 한국국어교육연구회; 최길용(1992), 「유효공선행록과 유씨삼대록의 작품적 연관성을 중심으로」, 『국어국문학』 107, 국어국문학회; 조용호(1995), 「유씨삼대록의 서사론적 연구」, 『한국고전연구』 1, 한국고전연구학회; 조용호(1996), 「삼대록 소설 연구」, 서강대 박사학위논문; 송성욱(1997), 「혼사장애형 대하소설의 서사문법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박일용(1997), 「유씨삼대록의 작가 의식 연구」, 『고전문학연구』 12, 한국고전문학회; 조광국(2007a), 「유씨삼대록의 가문창달 재론-전편과의 연계성을 중심으로」, 『한중인문학연구』 20, 한중인문학회; 조광국(2007b), 앞의 논문; 한길연, 앞의 논문; 한길연(2009), 「유씨삼대록의 ‘설초벽’ 연구」, 『국문학연구』 19, 국문학회; 장시광(2009), 「유씨삼대록 여성수난담의 성격과 서술자의식」, 『어문논총』 51, 한국문학언어학회; 한길연(2010), 「유씨삼대록의 예법(禮法)에 관한 연구」, 『한국학논총』 34, 고려대 한국학연구소 등이 있다.

5) 이승복, 앞의 논문.

품이라 분석하였고,<sup>6)</sup> 조광국은 다양한 캐릭터들의 조합을 통해 부부간에 일어날 수 있는 갈등들을 다채롭게 선보임으로써 「유씨삼대록」이 장편화를 이루어내는 동시에 흥미를 제고하고 있다고 고찰하였으며,<sup>7)</sup> 장시광은 전편 「유효공선행록」과의 비교하에 부부갈등을 통한 여성수난담에는 「유효공선행록」에서 보여주었던 문제의식은 퇴색하고 가부장제적 의식이 담겨 있는 가운데 통속화되는 경향을 보인다고 검토하였다.<sup>8)</sup>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유씨삼대록」에서 부부갈등담이 중요한 축을 차지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면서도 서로 간에 반대되는 주장들도 존재한다는 점에서 「유씨삼대록」의 부부갈등에 대한 논의가 앞으로 더 진행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시해 준다.

본고에서는 부부갈등담이 진행되는 원인 및 과정에 초점을 맞춰 「유씨삼대록」에서의 부부갈등을 여성교육과 관련시켜 논의해 보고자 한다. 기존에 부부갈등담을 다룬 논의에서도 부덕(婦德)을 갖춘 여주인공들이 수난을 겪는 양상에 대한 다양한 분석이 있었지만, 이를 당대 여성교육이 지닌 문제점과 결부시켜 논의를 진행하지는 않았다. 본고에서는 「유씨삼대록」에서 부부갈등담이 펼쳐지는 주요한 원인 중의 하나가 여성교육의 문제와 연관되고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검토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를 위해 「유씨삼대록」을 주된 자료로 검토하고, 「현씨양옹쌍린기」, 「임화정연」, 「쌍성봉효록」, 「하진양문록」 등을 보조 자료로 활용하기로 한다.<sup>9)</sup>

6) 박일용, 앞의 논문.

7) 조광국(2007b), 앞의 논문.

8) 장시광, 앞의 논문.

9) 「유씨삼대록」은 국립중앙도서관본 20권 2책, 「현씨양옹쌍린기」는 한국학중앙연구원본 10권 10책, 「임화정연」은 구활자본 6권 6책, 「쌍성봉효록」은 국립중앙도서관본 16권 16책, 「하진양문록」은 구활자본 3권 3책을 대상으로 한다. 이들 이본을 선택한 이유는 각각의 작품에서 유일본(唯一本)이거나 최선본(最善本)이기 때문이다. 예외적으로 「임화정연」의 경우 70권 70책의 필사본이 전하지만 쉽게 구하기

## 2. 조선후기 여성교육의 실상

조선후기 교훈서로는 『열녀전』,<sup>10)</sup> 『내훈』,<sup>11)</sup> 『계녀서』<sup>12)</sup>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교훈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여성상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는지에 초점을 맞춰 몇 가지 주요한 특징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이들 교훈서에서는 한결같이 여성의 절의(節義)를 강조한다. 이 중 『열녀전』은 여성의 절의에 관한 사건들의 집결체라 할 수 있을 만큼, 이와 관련된 다양한 사례들이 실려 있다. 먼저 조선의 여성교육에 많은 영향을 끼친 유향의 『열녀전』을 보면, 초(楚)나라의 왕이 식(息)나라를 멸망시키고 식부인을 자신의 처로 삼으려 하자 식부인이 자결한 이야기,<sup>13)</sup> 제(齊)나라 기량식(杞梁殖)의 부인이 남편이 전사하자 정성을 다해 상을 치른 후 자살한 이야기,<sup>14)</sup> 노(魯)나라 추호자(秋胡子)의 처가 신혼 초에 떠났던 남편이 오년 만에 집으로 돌아오는 중 뽕잎을 따는 자신을 남의 부인으로 알고 수작을 걸자 수치스러워 자살한 이야기<sup>15)</sup> 등 많은 이야기들이 여성이 자신의 몸을 보존하고 남편에 대한 절개 혹은 신의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던진 내용에 관련된 것이다.<sup>16)</sup>

---

어렵고 내용에 있어서는 구활자본과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기에 구활자본을 대상으로 검토하였다.

- 10) 『열녀전』의 경우에는 유향이 지은 『열녀전』(列女傳, 1996), 『열녀전』(이숙인 옮김, 예문서원, 1996)과 한국의 열녀를 대상으로 한 『열녀전』(이혜순·김경미, 『한국의 열녀전』, 월인 1998)을 모두 검토하였다.
- 11) 『내훈』에 관한 내용은 소혜왕후 『내훈』(이경하 주해, 한길사, 2011)을 대상으로 검토하였다.
- 12) 『계녀서』의 경우에는 조선후기 당대 많이 읽혔던 송시열의 『계녀서』(소혜왕후 한씨·송시열, 『내훈·계녀서』, 김종권 역주, 명문당, 1987)를 검토하였다.
- 13) 『열녀전』, 「정순전」(貞順傳), 「식군부인」(息君夫人), 유향, 앞의 책, 231-234면 참조.
- 14) 『열녀전』, 「정순전」(貞順傳), 「제기량처」(齊杞梁妻), 위의 책, 234-236면 참조.
- 15) 『열녀전』, 「절의전」(節義傳), 「노추결부」(魯秋潔婦), 위의 책, 291-294면 참조.
- 16) 위의 내용은 유향의 『열녀전』 중 주로 「정순전」(貞順傳), 「절의전」(節義傳)에 있는

이는 한국의 열녀들을 대상으로 한 『열녀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배열부전」(裴烈婦傳)처럼 전란 때 죽음으로 몸을 지킨 여성들에 관한 이야기, 「양열부전」(楊烈婦傳)처럼 남편을 따라 목숨을 끊은 여성들에 관한 이야기, 「홍절부전」(洪節婦傳)처럼 남편 사후 수절한 여성들에 관한 이야기 등 주로 자신의 몸을 지키거나 남편에 대한 절개를 지키기 위해 자살하거나 수절하는 여성들에 관한 사례들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의 『열녀전』에는 남편을 따라 순절하거나 남편을 위해 수절하거나 남편을 위해 자신의 몸을 훼손하는 열녀들만이 주로 보이는 가운데 유향의 『열녀전』에서보다도 훨씬 더 여성의 절의를 강조하는 이데올로기가 공고해진다.<sup>17)</sup>

이 때 이들 『열녀전』에서의 여성 인물들은 나긋나긋한 성품의 소유자라기보다는 서릿발 같은 준엄한 기상의 소유자라 할 만한 인물들이다. 이들 여성은 자신들의 절개를 지킬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하며, 조

---

내용이다. 유향의 『열녀전』에는 이외에도 「모의전」(母儀傳), 「현명전」(賢明傳), 「변통전」(辯通傳), 「일폐전」(擘擘傳) 등이 전한다. 「일폐전」의 경우 음란하거나 말 많고 경박스런 여성들이 나라와 가문을 망친 이야기로 「정순전」, 「절의전」의 반대 사례가 되지만 「정순전」, 「절의전」과 결국 같은 주장을 펼치고 있고, 「모의전」의 경우 순(舜) 임금의 두 부인인 아황(娥皇)과 여영(女英)이 자매지간으로 서로 화목하게 지냈다는 이야기(「유우이비」(有虞二妃)), 「현명전」의 경우 남편이 자신을 버리고 다른 데 가서 또 다른 아내를 얻어 살고 있는데도 시부모를 극진히 봉양하는 여종(女宗)에 관한 이야기(「송포여종」(宋鮑女宗)) 등에서 볼 수 있듯, 「정순전」, 「절의전」과 그 근처에서 상통한다. 물론 「통변전」 등에서 주체적인 여성의 면모가 보이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열녀전』에서는 전체적으로 남편을 위해 수절하거나 죽는 등의 ‘정숙한 여성상’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유향의 『열녀전』은 조선의 『삼강행실도』 등에도 수용되는데 이 때 유형의 『열녀전』에서 채택된 11명의 인물 중 정순형 유형에 속하는 여성이 7명으로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삼강행실도』 열녀편 전체 110편 중 남편을 위해 수절하거나 자결한 여성에 관한 사례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할 만큼 조선조에 들어와 열녀 이데올로기가 더욱 공고해지는 가운데 정숙한 여성상이 강조되는 양상을 보인다. (유향의 『열녀전』의 조선적 수용에 대해서는 이해순·김경미, 앞의 책, 17-21면을 참조하였다)

17) 위의 책, 14-40면.

금이라도 절개에 흠이 될 만한 일이 생기면 언제든지 자살할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했던 것이다. 여기에는 그들의 성적 욕망을 조절할 수 있는 혹은 거세할 수 있는 강한 자기규제의 원칙이 작동하고 있다. 『열녀전』 등의 교훈서를 통해 당대 여성들은 이들을 닮도록 지속적으로 훈육되었다.

당대 교훈서에서는 절개를 지켜야 한다는 대명제를 제시하는 동시에 언행의 하나하나도 철저히 교육시켰는데, 그 중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말 많음’(多言)에 대한 경계이다. 『내훈』의 「언행장」(言行章)에서는 맨 처음부터 입을 조심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명한 여자는 입을 조심해야 하기에 조금이라도 말대꾸하거나 아첨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되고, 심사숙고하지 않은 말이나 장난하는 말을 해서도 안 된다고 경계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말 많음’은 『내훈』의 「혼례장」(婚禮章)에서는 여성을 내쫓을 수 있는 칠거지악(七去之惡)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다언에 대한 경계는 『계녀서』 등에도 흡사하게 되풀이되어 나타난다.<sup>18)</sup> 여기에는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는 식의 여성이 집안일이나 나라 일에 간여하지 말아야 한다는 논리가 내재되어 있는 것인데, 이를 통해 산출될 수 있는 여성은 자기를 표현하기를 자제하는 과묵한 여성인 것이다.

말을 적게 해야 한다는 점과 함께 단정한 몸가짐을 가져야 한다는 점 또한 이들 교훈서에서 중요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는 부부간의 잠자리에 까지도 이어진다. 『내훈』의 「부부장」에서는 북송의 여형공(呂榮公)이 젊어서부터 늙어서까지 비록 잠자리에서라도 조금도 장난치며 웃은 적이

18) 『계녀서』, 「말씀을 조심하는 도리」편, 「중요로운 경계」편에는 다언에 대한 경계가 여러 대목에서 보인다. 그 중 「중요로운 경계」편에 있는 한 구절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말씀을 많이 하면 부질없는 말이 자연히 나오게 되어 남들이 실없이 여기게 되니 부디부디 말씀을 적게 하여라.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칠거지악에 들어 있으니 경계하여라.”(소혜왕후 한씨·송시열, 앞의 책, 223면)

없었다는 사례를 토대로,<sup>19)</sup> 부부간에도 최대한 예의를 지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물론 『내훈』의 「부부장」에서는 남성은 아내를 바꿀 수 있지만 여성은 남편을 바꿀 수 없기에 남편의 마음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점을 강조한다(소혜왕후, 『내훈』, 162면). 그럼에도 여기에서도 아내가 남편의 마음을 얻는 방법으로 아첨하고 아양을 떨면서 구차하게 친해져서는 안 되고 진실로 마음을 올곧게 하고 용모를 단정하게 하는 것, 즉 ‘전심정색’(傳心正色)해야 한다 하면서 예와 의를 갖추어야 한다는 점을 역설하고 있다(소혜왕후, 『내훈』, 163면). 이러한 내용들은 『계녀서』 등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난다.<sup>20)</sup> 이들 교훈서에서 강조하는 여성상은 잠자리에서조차 예의를 잃지 않는 단정한 여성상인 것이다.

이러한 내용들을 종합해 본다면, 당대의 교훈서들을 통해 산출될 수 있는 이상적인 여성상은 준엄하고 과묵하며 단정한 여성상이다. 자신의 절개를 지킬 줄 아는 추상같은 엄격함과, 자신을 표현하기를 자제할 줄 아는 과묵함과, 잠자리에서조차 단정할 줄 아는 무게감을 갖춘 여성인 것이다. 이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정숙한 여성’이라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정숙한 여성은 조선후기 당대에서 ‘열녀’를 산출하기 위한 필요조건이었다. “열녀의 성품은 모두 한결같이 단정하고 깨끗하며 규범적이다. […] 다음으로 성품이 굳세다는 점도 그들의 특성으로 나타난다.”(『열녀전』, 1998, 21-30면)라는 기존의 논의가 이를 잘 대변한다. 그런데 여기에는 욕망과 언행 등의 모든 면에서 절제할 줄 알아야 한다는 당위적인 규범성이 강하게 포진되어 있다. 이렇듯 한쪽으로 과도하게 무게중

19) 『내훈』의 경우에는 이상적인 모델로서 여성이 아니라 남성을 제시한 사례가 많다고 한다(소혜왕후, 앞의 책, 172면).

20) 『계녀서』, 「중요로운 경계」편에 “남편과 아내 사이는 극근히 친밀하게 공경하는 것이 지극한 도리이니, 말씀하는 것이나 기거하는 것이나 일동일정에 마음을 놓지 말고 높은 손님을 대접하는 듯이 하여라.”라는 구절이 있다(소혜왕후 한씨·송시열, 앞의 책, 223면).



심이 기울어 있는 여성상은 현실에서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즉, ‘이념의 과잉’을 보이면서 ‘정념의 결핍’을 야기할 가능성이 적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정숙한 여성이란 남성 가문의 종통적 순혈성을 담보하기 위한 여성상으로서의 적합할지 모르지만, 부부간의 애정관계에서는 걸림돌로 작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러한 여성이 남성에게 매혹적인 여성상과는 거리가 멀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숙한 여성상에는 성적인 자기 억제가 중요한 전제로 깔려 있기에, 여성이 성적으로 매력을 표출하는 것을 매우 금기시하였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부권제의 유지를 위해 여성은 성욕을 즐기도록 장려되지 않고 자신의 성욕을 참고 견디며 그것을 부끄러워하도록 교육받았던 것은 주지의 사실인 것이다.<sup>21)</sup> 결국 정숙한 여성상이란 당대 여성교육의 이상적 표본은 부부간의 관계에서 갈등이 야기될 수밖에 없음을 전제하고 있다.

### 3. 여성교육과 부부갈등의 관련양상

조선후기 당대 여성교육을 통해 산출될 수 있는 정숙한 여성이란 표본은 긍정적인 측면도 적지 않지만 한편으로 여성을 옹매할 수 있는 뜻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앞서 살펴보았다. 조선후기 미시생활사라 할 수 있을 만큼 당대 일상을 섬세하게 재현하고 있는 대화소설에서 이러한 양상들이 비중 있게 형상화되고 있다. 특히 『유씨삼대록』에서는 다양한 사례를 통해 이를 짚진하게 형상화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sup>22)</sup>

21) 케이트 밀레트(1975), 『성의 정치학』, 정의숙·조정호 옮김, 현대사상사, 229면 참조

22) 기존의 연구에서도 『유씨삼대록』의 부부갈등을 집중적으로 다루면서 여성인물들

## 3.1. '정숙한 여성 / 탈규범적 여성'과 부부갈등의 국면

「유씨삼대록」은 '부부갈등담' 그 자체라 할 수 있을 만큼, 다양각색의 부부갈등담이 다채롭게 펼쳐진다. 이 중 당대의 여성교육과 관련하여 문제적인 국면을 확연히 노정하고 있는 유세필-박영아 간의 갈등을 먼저 살펴보기로 한다. 이들 부부갈등은 적국의 모해, 탕자의 개입, 탕녀의 개입, 장인의 소인행(小人行) 등의 제 삼자의 개입 없이 순전히 부부간의 갈등만으로 문제가 야기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sup>23)</sup> 이는 일견 두 사람의 성격 갈등 즉 기질 대립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런데 단순히 그렇게 보기에는 석연치 않은 요소들이 내포되어 있다.

먼저 두 사람의 인물형상에 대해 살펴보면, 유세필은 “절미흔 용모와 단엄흔 괴상이 [...] 곡역후의 아름다움과 뉴후의 미모를 가져시니 부인이 그 괴질을 사랑하여 칭늬의 하즈하여 니르미 업”(6권, 41면)다는 서술자의 표현대로, 준수한 미모와 단중한 행실의 소유자로 그 모친 이부인이 생전 흠잡아 말할 것이 없는 인물로 나온다. 박영아 또한 “외모와 형

---

을 '여사지향형 아내', '투기질투형 아내', '적극활발형 아내', '오만방자형 아내' 등으로 나눈 바 있다(조광국(2007b), 앞의 논문). 본고에서 다루려는 '정숙한 여성'은 '여사지향형 아내'에, '탈규범적 여성'과 '교태로운 여성'은 '투기질투형 아내'에, '호걸스런 여성'은 '적극활발형 아내'에 각각 대응된다. 그런데 본고에서는 정숙한 여성을 산출한 당대 여성교육의 한계와 관련하여 부부갈등을 논하기 위해서 '여사지향형 아내'보다는 '정숙한 여성'이라 명명하였으며, 이런 정숙한 여성과 대비되는 인물을 명확히 부각시키기 위해 기준에 '투기질투형'으로 통합해서 다루었던 인물들을 '탈규범적 여성'과 '교태로운 여성'으로 분리하여 고찰하였다. 또한 기준의 '적극활발형 아내'는 '탈규범적 여성'과 다소 중복되는 측면이 있기에 '호걸스런 여성'이라고 명명하였다.

- 23) 물론 이후 순씨가 유세필의 처로 들어와 약간의 소동을 부리기도 한다. 하지만 순씨는 시댁에 들어와서 유세필과 박영아의 사이를 이간질하는 등의 행위는 전혀 하지 않는다. 순씨가 들어오기 이전부터 유세필과 박소저 둘 사이의 심각하게 진행되었고, 순씨가 들어온 이후에도 그 둘 사이에 진행되었던 갈등의 여파로서 사건이 진행된다 할 수 있다.

식 출뉴하여 제수의 누리미 업”(6권, 38면)다는 유세필의 말대로, 시대의 그 누구에게도 떨어지지 않을 미모와 덕성을 갖춘 인물로 등장한다. 두 인물 모두 미모와 덕성을 갖춘 뛰어난 인물인 것이다. 그럼에도 두 사람은 결혼하는 순간부터 갈등의 국면으로 돌입한다.

박쇼저로 더브러 결발하여 지 스년의 은의 흡연치 못하여 쇼저의 텃진 국식을 눈의 고풍이 녀일지언뎡 무정하고 아름다운 덕형을 올히 녀이나 흡이희미 업서 미일 야”를 뵈셔 셔당의 잇고 도스의 출입하여 일월을 보 넉디 흥번 쇼저의 침소를 츠즈미 업스니 [...] 부모도 당초는 칭의 괴질이 너모 청수하고 골격이 너모 쇠락한디 쇼저의 화월 기호를 비하여 상홀가 녀네 이셔 구터여 아른 체 아니코 도로혀 무던이 녀여 상셔의 슈형근신홀 궂치 아랏더니 점” 희포 되여 칭의 나히 츠고 괴상이 영위하여 당형의 단둥홀과 츠형의 준배홀를 곁하고 직괴롭고 풍농함미 희롱하는 언어의는 녀식 부치의 범연치 아니한디 흥노 쇼저의게 든 즉 흥 덩이 빙상 기호여 점” 실소하니 부인이 우려홀를 마디 아냐 박쇼저 침소 희운명으로 가물 권하면 칭이 흥연이 드러가 혹 스오 일식 머머러 셔당으로 나가니 부인이 혹스를 필즈로 심히 스랑하는디라 금슬이 소원홀를 근심하여 혹시 쇼저 침실의 가는 날이면 반드시 찬향 등으로 탐지하여 고하라 하니 이인이 밤마다 여어보디 쇼저로 말함미 업고 즉시 누어 자는 체하다가 들이 올면 니러나 신성하고 외당으로 가는디라 쇼저 혹스를 보면 심히 슈습하니 부인이 심히 어엿비 녀겨 무이홀를 친녀궂치 하고 칭을 본 즉 온 가지로 힐 문하고 기유하니 [...] 부인이 그 괴질을 스랑하여 칭의 하즈하여 니르 미 업다가 취쳐하여 금슬이 닝낙홀를 크게 근심하여 즈루 경계하니 혹시 쇼저의 아름다우물 아냐 스스로 정이 뵈” 하여 서로 보매 괴로오미 심호 거늘 모친의 녀녀히시를 강잉하여 희운명의 머물미 십여일의 쇼저의 몹은 괴질과 빗난 이용을 디하여 흥번 말함미 업서 괴식이 추상 기호니 쇼저 심히 불안하여 흥는디라(6권, 36-41면).

유세필은 결혼한 지 4년이 지나도록 박영아의 침소에 거의 가지 않

을 뿐만 아니라 간혹 가더라도 박영아와 말도 나누지도 않고 동침하지도 않는다. 그것은 위의 인용대목 밑줄 친 부분에서 반복적으로 서술되어 있듯, 박영아의 미모가 천향국색이고 그 품행이 아름답지만 박영아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유세필의 기질이 너무 맑아 그런 줄 알았던 집안 식구들도 유세필이 점차 나이가 들어 여색(女色)에 관심을 보이면서도 유독 아내인 박영아에 대해서만 싸늘하자 크게 근심하게 된다. 그러나 집안 식구들의 염려에도 유세필은 박영아에게만 가면 그 아름다운 미모와 행실에도 불구하고 얼음처럼 냉담해진다. 오히려 가족들의 염려는 유세필을 더욱 더 박영아에게서 멀어지게 만든다. 자신은 박영아와의 동침을 원하지 않는데 집안 식구들이 이를 자꾸 강권하고, 이 때문에 한 번 꾸지람조차 들은 일 없었던 자신이 부모로부터 야단까지 맞게 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유세필은 아내의 미모와 덕행이 아름다운 것을 잘 알면서도 아내에 대한 애정이 도통 생기지 않는다. 아내에게 성적으로 조금도 끌리지 않는 것이다. 그는 심지어 부부간에 그럭저럭 잘 지내면 되지 꼭 동침할 필요가 있는냐고 말하기까지 한다. 둘 사이의 이런 갈등에 대해 선행연구에서는 가장이자 남편으로서의 권한을 지키려 하는 유세필의 콤플렉스가 반영되어 있다고 보기도 하고(장시광, 231-235면) 가족들의 지나친 관심이 오히려 부부관계를 냉락하게 만들고 있다고 보면서 중세 혼숙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하였다(장시광, 203면). 물론 이런 측면들도 중요하다. 하지만 이렇게만 보고 말기에는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다. 선행연구가 주로 남성의 입장에서 논의된 감이 없지 않은데, 여성의 입장에서 과연 어떠한 상황이었겠는가에 대해 좀 더 분석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당대의 여성교육이다.

먼저 박영아는 “턴성이 빙옥 꺾고 성되 추월”(6권, 42면) 같다는 서술자의 표현 그대로, 당대 여성교훈서에서 강조하는 추상 같은 엄격한 성

품의 소유자이다. 이런 엄격한 성격에 유세필은 신방에 가서도 그녀에게 쉽게 다가가지 못하게 된다. 서로 말조차도 나누지 않은 채 불편하여 자리를 뜨게 되는 것이다.

더욱이 박영아는 펍 과묵하다. 결혼해서 4년 동안 남편인 유세필의 냉담함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자신을 박대하는 남편 앞에 한 마디 원망하는 말조차 하지 않을 정도로 묵묵히 참고 있다. 이후 유세필이 가족들에게 야단을 맞고는 박영아에게 화를 풀려고 박영아에게 함부로 말을 하자, 그제서야 박영아는 자신을 함부로 능욕하는 그 부당함에 대해 한 번 이야기한다. 이를 근거로 유세필은 아내가 강한 성품이라 자신이 가까이하기 어렵다는 말을 가족들에게 하지만, 그 형인 유세형이 유세필에게 자기 잘못을 모르고 제수씨에게 책임을 전가한다고 엄하게 꾸짖는 대목에서 볼 수 있듯 그것은 유세필의 자기변명에 불과한 측면이 적지 않다.

이후 운정 포정사로 좌천되어가는 부친을 따라갔던 박영아는 도적에게 잡혀가지만 기지로 위기를 모면하고 몸을 보전하여 다시 시댁으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유세필은 ‘광동도적의 처’라 하면서 박영아를 실절한 여성이라고 질욕하기를 무수히 한다. 그럼에도 박영아는 이에 대해 한 마디 해명의 말조차 하지 않는다. 그녀가 사경을 헤맬 때 우연히 그녀의 팔목에 있는 앵혈(鷹血)을 보고서야, 유세필은 오해를 풀고 그녀에 대해 딱한 마음을 가지게 된다. 이를 통해 볼 때 그녀가 비록 한두 번 자신의 의견을 말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사례는 극히 드물며, 미련스럽다 싶을 정도로 말을 아낀다. 그녀는 당대 교훈서에서 강조하는 과묵한 여성인 것이다. 이는 유세필을 더욱 답답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었을 수 있다.

게다가 그녀는 잠자리에서도 몸을 수습하는 매우 단정한 여성이다. 온갖 우여곡절 끝에 결혼한 지 5년만에 처음으로 동침을 하는 대목에서도 그녀는 “괴식이 상월 꺾고 동지눈도곤 츠니 싱의 정을 일호 가랍히미

업”(7권, 57면)을 정도로 몸을 극도로 수습한다. 여기에는 그간 자신을 박대했던 남편에 대한 서운한 감정이 섞여있기도 하지만, 성적인 욕망을 터부시하도록 교육받은 당대 여성들의 모습이 깊이 투영되어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우리 부뷔 쇼년결발노 오늑지의 니르러 원앙금니의 친익 흥미 처음이나 정의 친흥믄 오라거늘 과도히 슈습하여 이리흥미 인눈지의를 모르미라 부인의 명달흥므로써 엇디 속세 으녀의 토티도를 면티 못흥 늑노”(7권, 57면)라고 유세필이 박영아를 달래는 모습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이미 둘이 미우나 고우나 오늑 녀을 부부로 지내왔고 박영아가 죽을 고비를 겪고 다시 살아난 상태에서 노숙한 남편이 된 유세필이기에 이런 박영아의 모습에도 흔쾌히 동침을 했지, 이것이 신흠초야였으면 남녀 모두 초초하고 미숙한 가운데 둘 사이의 잠자리가 그리 쉽지 않았을 것임을 짐작케 한다.

이런 논의들을 토대로 할 때, 박영아는 당대 교훈서에서 이상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준엄하며, 과묵하고, 단정하다 할 수 있는 ‘정숙한 여성’이다. 그녀와 유세필 간의 갈등에 둘의 기질적인 문제가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지만, 이보다는 당대 여성교육이 지닌 폐단이 더욱 중요한 갈등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당대 여성교육의 문제가 박영아라는 개인을 통해 드러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런 추정을 더욱 굳히게끔 하는 장치는 ‘순씨’라는 인물의 설정이다.

순씨는 박영아가 부친을 따라 시댁을 떠난 사이에 유세필과 혼인한 인물로, “궁동이 추혀붓고 목이 움츠며 [...] 코히 주저안자 들니 업스며 말을 시작한 즉 우습이 문져 나고 동셔로 고면흥며 다리틀 드터지며 고개를 그덕여 괴운을 스스로 이기디 못하는”(6권, 68-69면) 추녀 중에도 추녀이자 조금도 채신없는 여성으로 등장한다. 이에 집안 식구들은 과연 유세필이 그런 인물과 잠자리를 가질까 호기심을 가지고 살펴본다. 그런데 유세필은 박색에다가 천방지축이기만 한 순씨를 보고는 빙옥 같이 차

갑고 말이 없는 박소저보다 편하고 시원스럽다고 여겨 천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동참까지 한다.

여기에서 순씨는 철저하게 박영아와 대척점에 있는 인물로 등장함을 알 수 있다. 그녀는 미모와 재덕에서 하나도 볼 것이 없는, 박영아와는 천양지차의 인물이다. 그런데 이 둘의 대척적 구도 안에는 이들이 당대 여성교육을 제대로 받은 인물인가, 그렇지 않은 인물인가의 차이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다음의 대목을 통해서 볼 수 있듯, 박영아는 당대의 여성교육을 철저히 받은 여성이다.

심하의 탄식하여 칭각하되 내 부모의 총의하시를 빗자와 명창비귀의 시스를 증심하고 십삼의 능직소와 십스의 흑직의를 우이 녀여 팔구 세의 녀공을 다 빗화 뉴문의 드리오매 구고의 흥은이 비록 산히 궂흐나 흑스의 박되 일 년의 흥번 무락미 업다가 존고의 말슴이 열 번 이시매 흥번 보아 고식과 증염하미 순〃 증가하여 거죄 작야디경의 니르고 욱이 금일의 미 츠니(6권, 50면).

박영아는 자신이 부모의 총애를 받으면서 시사(詩詞)에 깊이 몰두했고, 이미 팔구 세에 여공(女工)을 다 익혀 열네 살 때에는 옷을 만드는 일 정도는 우습게 여길 정도였다고 토로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편에게 냉대와 능욕을 받는 자신의 신세를 그녀는 서러워하게 되는 것이다.

반면, 순씨는 결혼한 다음날 시댁식구들이 무엇을 잘 하느냐고 묻자 “집이 가난하고 부피 업스니 빗홀 거시 밥 짓기와 방하 띠키를 잘 하옵고 여나쁜 일은 아디 못하느이다”(6권, 72-73면)라고 대답하는 대목에서 볼 수 있듯, 여성교육과는 거리가 먼 인물이다. 그렇기에 그녀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도 방귀를 마구 끼어대고, 음식을 함부로 집어먹으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패는 등 교양 없는 인물의 전형으로서

그러진다. 이처럼 박영아와 순씨 두 사람은 당대 여성교육과 관련하여 정반대의 위치에 있다.

기실 남성과 여성을 막론하고 미모와 재덕이 아름다운 이성에게 쏠리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그런데 일시적이기는 하지만 박영아와는 천양지차인 미모와 재덕의 열세를 순씨가 뒤집을 수 있었던 요인으로는 당대 여성교육의 맹점, 즉 정숙한 여성의 단점인 차가움과 답답함과 무미건조함이 한몫을 했을 것이라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이다. 정숙한 여성은 한 가정의 주부가 되어 아이를 낳아 키우고 남편을 뒷바라지하는 데는 적합할지 모르겠지만 남편에게 이성적으로 매력적인 존재로서의 의미를 지니는 것과는 거리가 멀 수 있다. 따라서 남편과의 성생활에서 많은 문제점을 야기했을 가능성이 있다. 신랑이라도 호방하다면 정숙하기만 한 여성을 어느 정도 이끌 수 있겠지만, 신랑도 엄숙한 남성이고 신부도 정숙한 여성일 때 그들이 마주한 공간은 숨막힐 듯한 분위기로 서로를 갑갑하게 만들었을 가능성이 큰 것이다. 유세필이 오히려 순씨를 편하게 대했던 것은, 규범적인 여성에 대한 숨 막힘에서 기인한 것일 수 있다.

이와 비슷한 사건이 「현씨양옹쌍린기」의 현수문과 주소저 간의 부부 갈등에서도 흡사하게 펼쳐진다. 「현씨양옹쌍린기」에서 현수문은 성품이 곧고 매서운 군자형 인물이며, 주소저도 추상같은 기상을 지닌 정숙한 숙녀로서 등장한다. 현수문은 주소저가 빙옥 같이 너무 깨끗하며 추상같은 엄숙한 기상을 가진 것을 꺼려 멀리하게 되고, 이유 없이 남편으로부터 냉대를 받은 주소저는 이 때문에 남편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게 된다.<sup>24)</sup>

이러한 제 양상들은 여성에게 자신을 표현하는 것을 터부시하게 만들고 절개를 지키는 것을 강조했던 교육의 결과와 밀접하게 관련된다. 즉,

24) 이에 대해서는 이지하(1992), 「현씨양옹쌍린기 연작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에서 논한 바 있다. 여기에서는 당대 교육과 관련해서는 논의하지 않고 있으나 두 인물 사이의 문제적 국면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다.



남성 가문의 혈통의 순수성을 담보하기 위해 여성으로 하여금 자신의 성적 매력에 과시한다거나 애교 있는 표현 등을 하는 행위들을 더럽게 여기도록 만들고 정조와 열절만을 강조했던 당대 여성교육의 피해가 곧 바로 그런 교육을 받은 여성에게 돌아오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 3.2. '정숙한 여성 / 교태로운 여성'과 부부갈등의 국면

당대 여성교육의 맹점이 드러나는 부분은 유세필과 박영아 간의 갈등뿐만 아니라, 유세형-진양공주-장혜영 간의 갈등, 유현-양벽주-장설혜 간의 갈등에서도 찾을 수 있다. 유세형-진양공주-장혜영 간의 갈등은 늑혼이 개입되어 있다는 점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유현-양벽주-장설혜 간의 갈등과 흡사한 면모를 지닌다. 호방한 남성-정숙한 여성-교태로운 여성 간의 갈등으로, 정숙한 여성과 대비되는 교태로운 여성이 남성들에게 실제로 매력적일 수밖에 없는 양상을 그려냄으로써 당대 여성교육의 문제점을 드러낸다. 비슷한 사건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이에 대한 문제의식이 깊이 있게 노정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중 늑혼 등의 복잡한 문제가 결부되어 있는 유세형-진양공주-장씨 간의 갈등 대신 부부갈등에 주력하고 있는 유현-양씨-장설혜 간의 갈등을 살펴보기로 한다.

유현은 매우 비범한 인물이면서도 앞서 살펴본 엄숙한 유세필과는 달리 호방한 인물로서 등장한다. 넓게 보면 둘 다 군자형 인물에 속한다 할 수 있지만, 유세필이 매우 엄격한 인물인 것과는 달리 유현은 호방한 성품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한편 유현과 혼인한 양벽주는 성품이 정숙하고 열렬하며 행실이 추상같아 당대 교훈서에서 제시하는 이상적인 여성상의 표본이라 할 만한 인물로 등장한다. 그렇지만 유현은 양벽주에 대한 별다른 애정을 느끼지 못한다. 비록 양벽주를 박대하지는 않지만

외전에서 주로 지내면서 양벽주의 처소에 출입하는 일이 드물게 된다.

이 또한 앞서 유세필과 박영아와의 갈등에서와 흡사하게 당대의 교혼서에서 제시하는 이상적인 여성상이 남편에게 그리 매력적인 여성이 될 수는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유현이 사랑하게 되는 여인은 바로 외가에서 우연히 만난 장설혜이다. 유현은 장설혜를 처음 본 순간부터 정신을 잃을 정도로 그녀에게 끌리게 된다.

당부인이 근친하여 여러 날 되니 공직 일 "은 가뵈오매 부인이 반겨 마  
자 드리고 말습혀더니 든득 안호로서 꽤옥 소리 당 " 하며 일위 미인이 년  
괴 십여 세는 호고 홍상칙의로 년보를 가뵈야이 옮겨 나아오다가 공주의  
등 두어 안자시물 보고 낭 " 이 우서 킬오디 "가개 작일 쇼미를 투호 지우  
를 애들나 호느니 원컨디 바독으로 설치호를 브라노이다" 부인이 웃고 왈  
"이는 진부 이랑이라 네 가개 아니 " 쉼니 드러가라" 그 미인이 대경하여  
년망이 거름을 도로혀거늘 싱이 그 잉성을 듯고 놀나 투목으로 잠간 슬피  
니 그 녀직 빙명노라호고 절묘쇄락하여 구름 곱흔 귀밧과 눈 곱흔 괴부의  
춘산 곱흔 아미와 효성 곱흔 낭안이며 도화 곱흔 낭협의 주순호치 곱흔  
즈티 어터하시니 꺾국의 지분 아님과 비연의 경신호를 곱혀 교연절세하  
미 비호 리 업는디라 다만 당부인 쇼시 즈식과 호가지니 양쇼저의 식티용  
광이 더만 못호미 아니로디 그 연 " 노라하여 절묘히 어엿브미 밋디 못홀  
듯호디라 공직 대경황홀하여 가는 디를 브라고 낭안을 쏘아 정혼을 일혀  
시니(9권, 18-20면).

모친 장부인이 근친하러 간 지 여러 날이 되자 유현이 인사차 장씨 가  
문에 갔다가 장부인의 질녀인 장설혜를 만나게 된다.<sup>25)</sup> 그녀는 유현을  
자신의 오라버니로 착각하고 일전에 투호놀이에서 진 것을 오늘 바둑으

25) 장부인은 바로 장혜영으로 그 조카인 장설혜와 젊었을 때의 모습이나 기질이 거의 흡사하다. 이를 통해서도 유세형-진양공주-장혜영 간의 갈등과 유현-양벽주-장설혜 간의 갈등이 매우 닮아 있음을 알 수 있다.

로 설욕하겠다고 웃으면서 말하며 들어온다. 유현이 낯선 남자임을 알고 장설혜가 급히 돌아서려는 순간, 그녀를 보게 된 유현은 그 아리따운 외모에 넋을 잃는다. 궤국부인(魏國夫人)과 조비연(趙飛燕) 같은 외모를 지닌 장설혜는 양벽주와 비교하여 미모 자체로는 우열을 가릴 수 없지만 그 “교용염퉁”(9권, 20면)한 모습 즉, 나긋나긋하고 교태로운 어여쁨은 그 누구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매혹적이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유현을 매혹시키는 장설혜란 인물은 당대의 규범적인 여성상과는 거리가 있다. 그녀가 등장하는 장면에서부터 이러한 점은 감지된다. 비록 안채이기는 하지만 남성이 안에 있는데도 자세히 살펴보지 않고 방문을 열고 들어온 점도 경솔한 측면이 적지 않고, 투호나 바둑을 즐기는 점도 당대 여성교육에서는 그리 좋게 보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이다. 서술자는 곧바로 그녀에 대해 비록 아리따고 총명하지만 천성이 편협하고 투기심이 있어 자신보다 잘난 사람을 질투하고 꺼려하는 인물이라 언급한다.<sup>26)</sup> 이처럼, 장설혜는 당대의 관점에서 이상적인 여성상과는 거리가 멀다.

그럼에도 유현은 장설혜의 매혹적인 모습에 침닉하게 된다. 장설혜를 한 번 본 뒤에는 사모하는 마음이 간절해져 장씨 가문에 찾아가 스스로 혼사를 주선하며, 이 사실이 발각나 부친으로부터 혹독한 매를 맞으며 엄책을 받은 뒤에도 상사병으로 목숨을 잃을 지경에까지 처한다. 결국 우여곡절 끝에 장설혜와 혼인한 뒤 장설혜의 본바탕을 알게 됨에도 불구하고 유현은 장설혜의 아리따운 모습을 대하면 마음이 혼미해지고 정이 무르녹아 그녀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리하여 장설혜에 현혹된 유현은 장설혜의 모해에 속아 어진 양벽주를 박대하고 양벽주의 시녀 월앵을 목베기까지 한다.

26) “성되 총오혜힐헛디 텃성이 편협스투헛여 투현질 능헛니 제계 나으 니를 썩리고  
므릿 서칙 가온디도 녀후의 인체와 왕도 위딩 처의 투악을 울히 녀이니.”(9권, 20면)

심지어 유현은 장설혜가 인전기라는 남자를 여장(女裝)시켜 양벽주를 겁탈하게 하려고 하다가 일의 전모가 발각나 친정으로 쫓겨간 뒤에도 장씨를 향한 마음을 끊지 못한다. 그 죄를 모르지 않지만 마음속으로 매번 그리워하는데, 특히 잠자리에서 그녀를 그리워한다. 그만큼 장설혜가 성적으로 매혹적인 여성으로서 유현에게 각인되었음을 잘 보여준다.

유현이 장설혜에 대한 정을 끊을 수 있었던 것은 장설혜가 유현의 부친 즉 그녀의 시아버지를 역적으로 몰아 죽이려 한 대죄를 범했기 때문이다. 이 사실을 알고는 유현은 장설혜를 찾아가 그녀를 단칼에 목 벤다. 그럼에도 그녀가 “가슴을 두드리고 윤희를 부디이저 슬허하느 얼골과 이원흔 말슴에 영웅의 괴운이 최찰하고 당부의 묵음이 어리게”(12권, 55면) 된다. “만일 그 죄악이 일 분이나 의심되고 강상을 범티 아냐신즉 사랑[유현]의 결단이 이에 맞디 아닐 거시”(12권, 55면)라는 서술자의 말대로, 장설혜의 교태로운 언행은 끝까지 유현을 애타게 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흡사한 사건들이 다른 대하소설에서도 종종 보이는데, 그 중 「쌍성봉효록」의 임계영-소소저-교씨 간의 갈등에서는 여성에 대한 남성의 심리가 잘 드러난다. 이는 호방한 인물인 임계영이 자신의 여러 부인들을 평가하면서 교태로운 교씨에게 미혹될 수밖에 없었던 사연을 토로하는 대목에서 볼 수 있다.

임계영은 소소저와 먼저 혼인했지만 강직한 숙녀형 인물인 소소저가 조금의 비례(非禮)도 용납하지 않기에 부부간에 갈등이 잦다. 그러던 차에 교태로운 교씨를 우연히 보고는 그녀를 잊지 못해 부모 몰래 매과를 보내 그녀와의 혼사를 도모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인다. 이후 우여곡절 끝에 교씨와 혼인하게 된 임계영은 그녀의 교태로운 모습에 흠뻑 빠진다. 임계영이 소씨 이외에도 문씨, 홍씨 등 여러 부인을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씨에게 침혹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토로한다.

심헌의 생각하던 ‘소시는 당세의 숙녀철부요 너모 강열단속하여 장부

의 은익을 가탐지 아니하고 흥시는 성정이 어위호여 남주의 사랑을 돕지 아니하고 문씨는 슈습호미 과도하고 너모 침묵호여 나의 답」이 너기든 빅라 이 정히 친인[교씨]은 명년호 숙녀 아니라 온순다정호 가인이니 가히 남의 중요한 노리기라」(『쌍성봉효록』 7권, 67-68장)

임계영이 생각하기에 자신의 부인들의 특징은, 특히 잠자리에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정실인 숙씨는 숙녀철부(淑女哲婦)로 너무나 정숙하여 남자와의 동침을 잘 받아들이지 않고, 흥씨는 성정이 너무 드세고 거칠어 남자로 하여금 사랑하고픈 마음을 불러일으키지 않으며, 문씨는 부끄러워하여 몸을 추스르는 것이 과도하고 너무 말이 없어 답답하다. 그러나 교씨만은 정숙한 숙녀가 아니라 온순하고 다정한 사람이기에 자신과 더불어 즐기기에 적합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당대 이데올로기적인 질서 속에서 산출되기 쉬운, 너무나 정대하여 남성과의 잠자리를 즐겨하지 않는 숙녀형 인물 혹은 너무나 부끄러움이 많아 남성과의 잠자리에서 수동적인 숙녀형 인물은 남성들이 선호하는 여성이 아니었던 것이다. 남성들의 입장에서는 좀 더 발랄하고 다정한 교씨와 같은 인물을 선호할 수밖에 없음을 임계영은 토로하고 있다.<sup>27)</sup>

물론 이러한 고혹적인 여성들, 애정이 충만하거나 과잉된 고혹적 여성은 독점욕이 강하고 투기가 심하여 대개는 시댁에서 출거되거나 간혹 개과하여 정숙한 여성으로 거듭나기도 한다. 따라서 이들 여성들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대하소설에서는 견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남주인공이 이들이 자기 부친을 해치려 할 정도의 극악한 죄를 저지르고 나서야 이들에 대한 정을 끊을 수 있는 양상이 펼쳐진다는 것은 문제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정숙한 여성’보다는 ‘교태로운 여성’을 갈망했던 당

27) 임계영과 교씨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는 한길연(2007b), 『몸의 형상화 방식을 통해서 본 고전대하소설 속 탕녀 연구』, 『여성문학연구』 18, 한국여성문학학회에서 상론한 바 있다.

대 남성들의 심리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결국 이런 현실의 한 편에는 정숙한 여인들로 교육받은 여성들의 희생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 3.3. ‘정숙한 여성 / 호걸스런 여성’과 부부갈등의 국면

당대 교훈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정숙한 여성’과 대비될 수 있는 여성 상으로는 탈규범적 여성, 교태로운 여성과 함께 ‘호걸스런 여성’이 있다. 『유씨삼대록』의 유세창-남소저-설초벽 간의 갈등에는 정숙한 여성과 대비되는 호걸스런 여성이 등장함으로써 부부갈등의 또 다른 국면을 보여 준다. 여기에도 당대 여성교육이 지닌 한계가 은연 중 드러난다.

유세창과 남소저는 둘 다 빼어난 인물로서, 결혼 초에는 “요조숙녀는 군자의 좋은 짝이다”(窈窕淑女, 君子好逑)<sup>28)</sup>라는 『시경』의 구절처럼 정숙한 여성과 군자형 남성과의 조화로운 결합을 보여주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 하지만 유세창이 풍양의 모반을 진압하러 갔다가 우연히 만나게 된 설초벽이란 여인이 등장하는 순간부터 유세창과 남소저의 조화로운 부부관계에 균열이 가기 시작한다.

처음에 설초벽은 남장(男裝)을 한 채로 유세창을 만나 지기(知己)로서 지내게 된다. 이후 설초벽이 유세창을 따라 상경한 뒤에 문·무과에 모두 급제하고는 자신의 정체를 밝힌 뒤 임금의 주선하에 유세창과 혼인하게 된다. 설초벽은 부모가 일찍 돌아가신 뒤에 자신의 몸을 지키기 위해 남장을 한 채 자라난 인물로 문무에 능하고 활달한 성품의 호걸스런 여성이다. 유세창은 남장을 한 상태의 설초벽을 만났을 때부터 뜻이 상합함에 절친했다가 이후 여자인 것이 밝혀지고 부부관계가 되자 더욱 더 친밀해진다. 그리하여 설초벽을 총애하고 남소저를 냉대하게 된다. 유세

28) 『시경』(詩經), 「주남」(周南), 『관지장』(關雎章).

창은 조신하게 여공(女工)에만 몰두하면서 살아왔던 남소저에게서 볼 수 없었던,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신선한 매력을 호걸스런 여성인 설초벽에게서 발견한 것이다.

그런데 이런 설초벽에 대한 당대 여성들의 평가는 매우 냉담하다. 비록 진양공주가 그 절의를 높이 평가하기는 하지만 그 이외의 유씨 가문 여성들의 그녀에 대한 반응은 냉소적일 정도이다.

승상이 제즈를 거느려 집의 니르러 츠스를 던히니 제인이 차악하여 말  
이 업고 니부인이 미우를 빙기여 글오되 “나는 용졸한 부인이라 이런 열  
협을 주부로 헝리오 괴롭고 괴로올디라 삼이 종시 아름다운 즈식이 아니  
로다” 낭한님 부인이 쇼왈 “부덕은 대가 덕요의 더오미 업느니 녀즈의 삼  
낙둑되 가히 당치 아니토소이다” 샤어스 부인이 낭쇼왈 “삼형이 남저의  
숙노히미 분의 넘어 변방 괴물을 어더 계시니 그러커든 독헌의 쥬야 즘겨  
그리 호호여 계시리잇가”(6권, 9면)

설초벽과 유세창이 임금의 주도하에 약혼을 하게 된 사실을 알게 된 유씨 가문 여성들은 이에 대한 자신들의 심정을 토로한다. 먼저 설초벽을 며느리로 맞이하게 될 유세창의 모친 이부인은 자신 같은 용졸한 부인이 열협(烈俠)의 며느리를 맞이하게 되어 괴롭다고 토로한다. 이부인의 둘째 딸인 양한림 부인 유현영은 부녀자의 덕과 관련해서는 『여계』(女誡)를 지은 조대가(趙大家)와 거안제미(學案齊眉)를 실천한 양홍(梁鴻)의 처 덕요(德耀)보다 뛰어난 사람이 없으니, 여자가 육도삼략(六韜三略)에 능숙한 것은 가당치 않다고 설초벽을 은근히 경시한다. 이어 이부인의 셋째 딸인 사어사 부인 유옥영은 올케언니인 남소저의 정숙하고 요조함이 분에 넘쳐 변방의 괴물을 얻어 밤낮으로 혹하여 있느냐고 노골적으로 유세창을 조롱하면서 설초벽을 괴물 취급한다. 유옥영이 “변방 괴물”이라 설초벽을 규정하는 것은 설초벽과 같은 인물에 대한 당대 여성들

의 시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이라 할 수 있다. 교훈서를 통해 정숙한 여성을 이상적인 여성상으로서 주입받은 이들에게 설초벽은 괴물로서 인식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유씨 집안 여성들은 시누이들을 필두로 차후에도 설초벽의 너무나 활달한 나머지 부녀자의 태도와는 거리가 먼 행실들에 대해 혈뜬고 얽잡아 본다. 설초벽의 시부모인 유연과 이부인은 설초벽의 활달한 행동을 무던하게 여기지만, 유옥영 등의 시누이는 “반순타비(反唇唾飛)호여”(6권, 13면) 즉 입을 삐죽거리고 침을 뱉으며 비웃게 된다.

설초벽에 대한 유씨 집안 여성들의 평가에서 볼 수 있듯, 그들이 훈육받은 관점에서 보자면 설초벽은 이상적인 여성상과는 거리가 멀다. 물론 설초벽이 자신만을 총애하는 남편을 피해 시댁을 떠남으로써 남소저로 하여금 다시금 정실부인의 자리를 확고히 할 수 있게 하고, 순씨와 같은 인물이 박영아 등을 구타하는 등의 패악을 부릴 때 이를 제압하자 유씨 집안 여성들이 설초벽을 재평가하며 인정하게 된다. 그럼에도 그들이 설초벽을 인정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고 그 이전까지는 설초벽에 대한 부정적 시선을 계속적으로 견지하고 있었다. 당대 여성들의 가치관으로는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설초벽과 같은 여성에 대한 부정적 시선을 『유씨삼대록』에서는 놓치지 않고 잘 포착하여 형상화내고 있는 것이다. 이는 여성들이 당대 지배이념을 얼마나 공고히 내면화하고 있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다.

문제는 정숙한 여성인 남소저에게서 느꼈던 답답함을 호걸스런 여성인 설초벽을 통해 풀기를 갈망했던 당대 남성들의 심리이다. 설초벽의 시원스런 성격뿐만 아니라 문무 모두에 있어서의 뛰어난 재주, 그리고 영웅의 도량과 열사의 풍채 등에 반한 유세창은 그녀와의 진정한 소통이 가능한 관계를 꿈꾸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유세창은 설초벽을 편애하면서 남소저에게는 공연스레 근



심 땀 얼굴로 집안 식구들에게 염려를 끼치지 말라는 핀잔을 주기까지 한다. 그러나 집안 식구들은 이런 사정을 감지하고 다들 걱정한다. 특히 유세창의 모친 이부인은 “설시 현털허여 당시[장설영, 유세형의 둘째 부인]의 공고흡과 다르니 남시 평칭을 회복기 어렵도다.”(6권, 17면)라고 생각하면서 큰 근심거리로 삼는다. 설초벽은 현철한 인물로 교태로운 여성인 유세형의 둘째부인 장설영과는 다르기에 남소저가 평생 동안 남편인 유세창에게서 지속적으로 박대를 받을 것을 염려한 것이다. 이는 호걸스런 여성이 정숙한 여성에게 얼마나 위협적인 존재가 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결국 설초벽은 자신 때문에 남소저가 박대를 받는 것을 알고는 시택을 떠나 문·무과에 장원급제했을 때 임금이 하사한 집으로 가서 평생을 홀로 살아가게 된다. 그리고 남편에게는 부부 관계가 아닌 지기의 관계로 돌아갈 것을 선언한다. 그럼에도 유세창은 한평생 설초벽을 잊지 못해 연연해한다. 설초벽과 같은 호걸스런 여성들이 남성에게 얼마나 매혹적일 수 있는가를 잘 보여준다.

앞서 장설혜와 같은 교태로운 여성이 나긋나긋한 자태와 넘칠 정도의 애정으로서 남성을 매혹시켰다면, 이들 여성들은 그 활달한 성품과 출중한 재주로서 남성을 매혹시키고 있다. 물론 교태로운 여성은 실제로 많이 존재했겠지만, 호걸스런 여성은 실제로 존재하기는 그리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이런 여성의 존재가 정숙한 여성에 비해 남성에게 훨씬 더 매력적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것은 의의가 있다. 그것은 당대 교육에서 제시하는 여성상인 정숙한 여성에 대한 반성적 준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성이 지닌 가능성을 담아준 채 정숙한 여인으로만 훈육하고 있는 당대 여성교육의 한계를 노정하게 되는 것이다.

호걸스런 여성에 대한 남성들의 선호는 「임화정연」의 임규가 정연양의 시비인 석가월을 총애하여 자신의 아내로 삼으려고 애쓰는 대목, 「하

진양문록』에서 진세벽이 하옥주에게 절절 매면서 사모하는 마음을 토로하는 대목에서도 잘 드러난다. 『임화정연』에서 석가월은 문무를 겸비한 인물로, 임규는 여주인공인 정연양보다도 석가월에 대한 진심어린 갈망을 드러내며, 『하진양문록』에서는 호걸스런 하옥주를 남주인공 진세벽이 진심으로 사모하면서 애정을 구하는 양상이 펼쳐진다. 이런 양상들은 당대 정숙한 여성을 이상적 여성의 표본으로만 교육받고, 또 스스로도 거기에 근접해갔던 당대 여성들이 실은 실생활에서 특히 부부간의 관계에서 많은 부분들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4. 결론

앞서 『유씨삼대록』의 부부갈등을 여성교육과 관련지어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당대 여성교육에서 산출되기 쉬운 여성상인 ‘정숙한 여성’이 실은 부부관계 속에서 갈등을 일으킬 여지가 많음을 고찰하였다. 이는 정숙한 여성과 대비되는 ‘탈규범적 여성’, ‘교태로운 여성’, ‘호걸스런 여성’과의 비교를 통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었다.

조선후기 당대 여성교육이란, 여성을 남성중심적 가부장제를 유지시키고 강화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었던 측면이 강하다. 남성 가문의 혈통의 순수성을 담보하기 위해 이념적으로 전사화된 투사를 만들거나 성적 욕망들을 터부시하도록 훈육된 석녀에 가까운 모습이 그들의 실상이다. 그녀들에게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준 것과는 거리가 멀다. 이처럼, 당대의 여성교육이란 편향된 측면이 적지 않았기에 여성에게 긍정적인 결과만을 가져온 것이 아니었다. 그 폐단은 부부간의 갈등에서도 확연히 드러나고 있었다.

남성의 경우에는 준엄하고 과묵하며 단정한 정실부인 이외에 다정하고 애교 있고 발랄한—실제로 그렇거나 실제로 그렇지 않더라도 그렇게 보이도록 애썼던—첩이나 기생들을 통해 자신들의 욕구를 발산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되어 있었다. 즉, 그들에게는 자손의 확보라는 당위적 책임과 성적 욕구의 발산이라는 개인적 즐거움을 표출할 수 있는 길이 이중으로 마련되어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정숙한 여인을 정실부인의 자리에 두고 교태로운 여인을 첩이나 기생의 자리에 둘 수 있었다. 그런데 여성의 입장에서는 인간이 지닐 수 있는 다양한 측면들이 양분화 된 채 한쪽의 성향만을 지니도록 훈육 받았기에 자신의 또 다른 측면을 희생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여성이 얼마나 가혹한 시련을 겪어야하는가를 「유씨삼대록」은 여러 사건을 통해 그려내고 있다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먼저 ‘탈규범적 여성’, ‘교태로운 여성’과의 대비 속에서 표출되고 있었다. 여기에서는 남성들에게 오히려 여성교육을 받지 않은 탈규범적 여성이 과묵하고 답답한 정숙한 여성보다 편히 다가갈 수 있는 존재이며, 나긋나긋한 교태로운 여성이 추상같이 엄숙한 정숙한 여성에 비해 훨씬 더 매혹적일 수 있는 존재임을 보여준다. 교태로운 여성 등이 지닌 매력은 실상 정숙한 여성 또한 지닐 수 있는 매력인데도 이런 가능성이 닫혀진 채 정숙화된 여성으로 고착화된 이들은 남성에게는 답답하고 매력 없는 존재로서 인식되고 있었다. 이들 여성들이 지닌 뛰어난 미모와 재덕에도 불구하고 남편에게 냉대 받는 모습은 이런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한편, 여성에게 열려진 많은 다양성들을 닫아버린 것이 당대 여성교육의 또 다른 한계라 할 수 있다. 당대 여성교육이란 가정이라는 사적 공간 안에 한정된 교육이지 가정 밖을 벗어나는 공적 영역에 대해서는 닫혀 있었기에, 여성들에게 그들의 잠재된 무한한 가능성들을 펼칠 수 있도록

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었다. 물론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어깨 너머로 혹은 부모의 특혜로 학문을 익혀 박식한 식견을 지닌 여성들이 산출되기도 하였지만 이는 극소수에 해당했고, 비록 이들이 현명하다 하더라도 공적인 영역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차단되어 있었다. ‘호걸스런 여성’은 이런 가능성이 펼쳐졌을 때 여성이 활달한 도량과 문무의 재능을 겸비하여 남성과 진정한 소통이 가능한 단계로까지 나아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이런 활달하고 재주 있는 여성이 남성에게도 매우 매력적일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런 호걸스런 여성을 괴물 취급하던 여성들의 시선은 당대 여성들의 일반적인 의식 수준을 보여주면서도 정숙한 여성과 대비되는 이런 호걸스런 여성의 형상화를 통해 당대 여성교육의 문제점을 일정 정도 노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유씨삼대록」은 부부갈등의 미묘한 지점들이 당대 여성교육의 맹점과 긴밀히 관련된다는 점을 포착해 내고 있다는 점, 그것도 단지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몇 개의 사건을 통해 연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다른 대하소설에서도 여성교육의 한계와 관련한 대목들이 조금씩 노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유씨삼대록」에서는 이를 집중적으로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건들의 배경으로 여성들이 당대의 이데올로기를 얼마나 공고히 내면화하고 있는가를 더불어 보여줌으로써 여성교육과 관련한 사건들이 지니는 의미는 더욱 문제적으로 부각되고 있었다.

물론 정숙한 여성으로 표상되는 「유씨삼대록」의 여주인공들은 결국에는 행복해진다. 따라서 「유씨삼대록」이 당대 남성 중심의 이데올로기에서 자유롭다고는 할 수 없다.<sup>29)</sup> 그럼에도 그러한 이념적 테두리 안에서

29) 이와 함께 또 고려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은 투기를 했던 유옥영과 같은 인물이 남편인 사어사와 친정식구들의 집요한 공조 하에서 남편에게 순종하는 여성으로 훈육되고 있는 점도 「유씨삼대록」이 당대 지배 이데올로기 안에 자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목에서 유옥영은 쉽사리 질투심을 꺾는 것이 쉽지

나마 여성의 실상과 관련한 다양한 문제점 특히 여성교육과 관련한 문제점을 은연중에 드러내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특히 행복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정숙한 여성들은 중국에는 행복해진다는 결말을 통해 당대 지배 이념을 따르도록 또 다시 마법의 주문을 걸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한 결말에 이르기까지 이들 여성이 얼마나 험난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환기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들 정숙한 여성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정숙한 여성 스스로 죽음의 문턱을 경험하다가 살아나야 한다거나, 교태로운 여성이 시부(媿父)를 살해하는 패륜을 저질러야 한다거나, 호걸스런 여성이 남편을 떠나 자신만의 공간을 찾아가야 하는 등의 극단적인 계기가 있어야 한다. 이런 계기가 마련되지 않고서는 이들이 행복해지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을 「유씨삼대록」은 보여주고 있다. 기실 이들 정숙한 여성들의 행복담은 불가능에 가까운 것으로 보이기까지 하는 것이 사실이다.

선행연구에서도 「유씨삼대록」은 “가부장제 사회 내에서 부부갈등이 단순히 부덕을 소유하지 않은 부정적인 여인에 의해서 야기되는 것만이 아님을 이야기한 것이다.”(박일용, 202면)라고 논한 바 있다. 이는 결국 이들이 겪게 되는 갈등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당대 제도의 문제와 긴밀히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그것이 바로 여성교육의 한계와 연관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처럼 당대 이데올로기 체제 안에서 여성들이 가질 수 있는 불만의 목소리를 담아내고 있는 것, 그 중에서도 여성교육과 관련한 불만들을 담아내고 있는 것이 「유씨삼대록」이 여성의식과 관련하여 지닐 수 있는

---

않았기에 남편의 행동을 받아들이지 않고 강력하게 항거하며, 결국 사경을 헤매는 위기를 겪고 나서야 자신의 질투심을 꺾게 된다. 이는 질투심이란 것이 인간의 본성과 관련되는 것으로 이를 제거한다는 것이 얼마나 가혹한 것인가를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또 다른 문제적 국면을 보여주고 있다 할 수 있다.

의미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 생각한다. 『유씨삼대록』은 당대 이데올로기 체제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대 여성과 관련한 현실의 문제점을 섬세하게 노정하는 가운데 여성의식을 드러내고 있는 작품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대하소설에서 작동하는 여성의 형상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다. 탈규범적 여성, 호걸스런 여성은 간혹 나올 뿐만 아니라 매우 예외적인 사례이고, 대개 정숙한 여성과 교태로운 여성 두 인물이 대립하는 양상을 보이는데 이 때 이들을 형상화하는 방식은 공식화되어 있다. 정숙한 여성은 남편에게 별다른 매력을 선사하지 못하고 온갖 고난을 겪다가 중국에 가서야 다시 인정받고, 교태로운 여성은 남편을 고평시켜 충애를 받다가 중국에는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려는 욕망 때문에 악행을 저질러 시택에서 쫓겨나 변방으로까지 추방되거나 죽임을 당한다. 물론 여기에는 미혼단 등의 요약(妖藥)의 장치가 들어가기도 하지만 이는 남성인물들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것으로, 실제로도 그러했던 정황을 우회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sup>30)</sup> 정숙한 여성에게는 온갖 고난과 박대를 참고 견디면 중국에는 행복해질 수 있다는 마법을 걸며, 교태로운 여성에게는 그들로부터 한껏 욕망을 충족하고는 음녀 혹은 괴물로 낙인찍어 폐기처분해버리는 처단을 내린다. 남성 가부장제가 작동하는 이중의 방식이다.<sup>31)</sup>

『쌍성봉효록』 등의 작품에서 ‘교태로운 여성’에 초점을 맞추어 그들이 중국에 괴물로 변형되어 폐기처분되는 과정이 상세하게 제시된다면,

30) 이에 대해서는 한길연(2008), 『대하소설의 요약(妖藥) 모티프 연구』, 『고소설연구』 25, 한국고소설학회에서 상론한 바 있다.

31) 교태로운 여성 즉 ‘탕녀’를 괴물로 변형시켜 중국에는 변방으로 축출하는 양상과 관련해서는 한길연(2007b), 앞의 논문에서 상론한 바 있다. 여기에서는 이들 탕녀형 여성들이 가진 리비도적인 성적 에너지에 당대 남성인물들이 끌리면서도 이것이 언제 체제전복적인 위험요소로 돌변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함께 전제되어 있는 것이라 보았다.

『유씨삼대록』에서는 ‘정숙한 여성’에 초점을 맞추어 그들이 온갖 고난을 겪다가 행복해지는 과정이 상세하게 제시된다. 그럼에도 『유씨삼대록』에서는 이런 단순화된 구도에 일정 정도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그들이 고난을 겪는 과정에서 여성교육의 문제점을 현실감 있게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다. 정숙한 여성이 고난 받는 것에는 ‘교태로운 여성’ 등의 타자도 중요한 요인이 되지만 정숙한 여성 스스로가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것은 여성이 지닐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들을 박탈해 버린 당대 여성교육의 한계와 연관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이다.

## 참고문헌

- 김현숙(1989), 「유씨삼대록 연구-삼대기 구성을 중심으로」, 이화여대 석사학위 논문.
- 박일용(1997), 「유씨삼대록의 작가 의식 연구」, 『고전문학연구』 12, 한국고전문학회.
- 소혜왕후(2011), 『내훈』(이경하 주해), 한길사.
- 소혜왕후 한씨 · 송시열(1987), 『내훈 · 계녀서』(김종권 역주), 명문당.
- 송성욱(1990), 「고전소설에 나타난 부(父)의 양상과 그 세계관-뉴효공선행록과 뉴씨삼대록을 중심으로」, 『관악어문연구』 15,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 송성욱(1997), 「혼사장애형 대하소설의 서사문법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 이수봉(1978), 「가문소설 연구」, 『동아논총』 15, 동아대 출판부.
- 이수봉(1988), 「유씨삼대록 연구」, 『동천 조건상박사 고회기념논총』, 형설출판사.
- 이승복(1992), 「유씨삼대록에 나타난 정·부실 갈등의 양상과 의미」, 『국어교육』 77, 한국국어교육연구회.
- 이지하(1992), 「현씨양옹쌍린기 연작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 이혜순 · 김경미(1998), 『한국의 열녀전』, 월인.
- 임치균(1989), 「유효공선행록 연구」, 『관악어문연구』 14,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 장시광(2009), 「유씨삼대록 여성수난담의 성격과 서술자의식」, 『어문논총』 51, 한국문학언어학회.
- 조광국(2007a), 「유씨삼대록의 가문창달 재론-전편과의 연계성을 중심으로」, 『한중인문학연구』 20, 한중인문학회.
- 조광국(2007b), 「고전소설의 부부 캐릭터 조합과 흥미-유씨삼대록의 경우」, 『개신어문연구』 26, 개신어문학회.
- 조용호(1995), 「유씨삼대록의 서사론적 연구」, 『한국고전연구』 1, 한국고전연구학회.
- 조용호(1996), 「삼대록 소설 연구」, 서강대 박사학위논문.
- 최길용(1992), 「유효공선행록과 유씨삼대록의 작품적 연관성을 중심으로」, 『국어국문학』 107, 국어국문학회.



- 한길연(2007a), 「유씨삼대록의 죽음의 형상화와 그 의미」, 『한국문화』 28,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 한길연(2007b), 「몸의 형상화 방식을 통해서 본 고전대하소설 속 탕녀 연구」, 『여성문학연구』 18, 한국여성문학학회.
- 한길연(2008), 「대하소설의 요약(妖藥) 모티프 연구」, 『고소설연구』 25, 한국고소설학회.
- 한길연(2009), 「유씨삼대록의 ‘설초벽’ 연구」, 『국문학연구』 19, 국문학회.
- 한길연(2010), 「유씨삼대록의 예법(禮法)에 관한 연구」, 『한국학논총』 34, 고려대 한국학연구소.
- 케이트 밀레트(1975), 『성의 정치학』(정의숙·조정호 옮김), 현대사상사.

원고 접수일: 2011년 11월 2일

심사 완료일: 2011년 11월 23일

게재 확정일: 2011년 11월 24일

ABSTRACT

---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ducation of Women  
and Conflict in Conjugal Relations  
- Focusing Mainly on the *Yussisamdaerok* -

Han, Gill Yeon

This thesis is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ducation of women and couple conflict. We could observe that, in fact, ‘virtuous women’, the feminine ideal suggested in the education of the time, were more likely to cause conflict in conjugal relations.

The education of women in the late Chosun dynasty had the social aspect of retaining the male-centric patriarchal system. The image of the female warrior or insensitive sterile women were the real state of women in the education of the time. The education of women of the time had prejudiced aspects and resulted in negative effects with regard to conflict in conjugal relations.

In literary works women are described as follows. To men, ‘de-standard women’, not trained in the education of women, are more easy beings than taciturn, unadaptable and faithful women. Tender ‘flirtatious women’ are more charming beings than solemn and virtuous women. And women

with an outgoing and gallant air are more interactive beings than women with limited education. Due to the hidden side of the situation of the time, virtuous women underwent many difficulties and this was not the problem of one person, but of the education of women of the time.

In terms of this, *Yussisamdaerok* is worthy of notice in that it catches that subtle conflicts in conjugal relations are intimately related to the education of women of the time, and moreover it shows many interesting affairs sequentially.

